

2020. 12.
Vol.5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¹⁾

하형석	연구위원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김성은	부연구위원
이용해	전문연구원

개요

- 조사목적** ▶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
- 조사대상** ▶ 원패널-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초4 코호트 2,607명), 중학교 1학년(중1 코호트 2,590명)
- ▶ 원패널의 보호자- 5,000여 명(각 코호트별 2,500여 명)
- ▶ 원패널의 형제자매- 2,000여 명(각 코호트별 1,000여 명)
- 조사항목** ▶ 원패널 / 원패널의 형제자매 :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매년 8월 ~ 11월

1) 본 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년도 고유과제 보고서인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와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²⁾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 개인발달

● 생활시간 - 하루 일과

-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평일과 주말 시간은 모두 줄어들.
- 특히, 중학교 1학년 코호트에서 평일 0.83시간, 주말 1.83시간씩 더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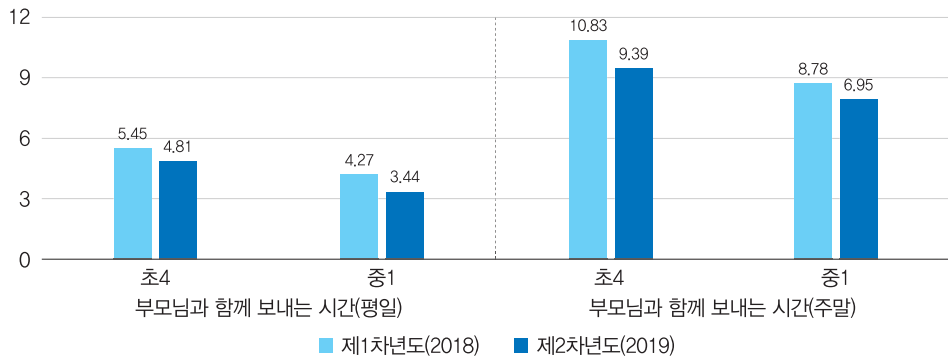


그림 1-1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평균

● 지적 발달 - 학업열의

- 학업열의의 전체 평균은 1차년도 대비 모두 떨어졌으며,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2.73점에서 2.65점으로 0.08점 더 하락함.
- 세부항목별로 두 코호트 모두 현신(초4 코호트 : -0.11점, 중1 코호트 : -0.09점)이 가장 하락한 반면,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활기(2.17점 → 2.24점)와 몰두(2.41점 → 2.44점)는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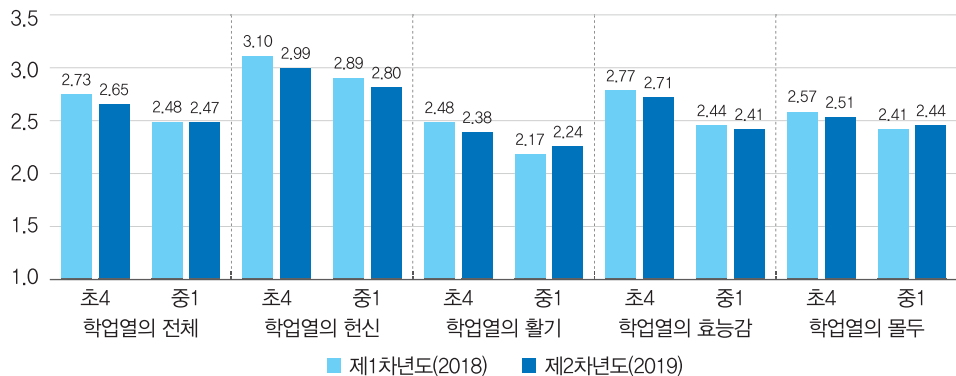


그림 1-2 학업열의의 평균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 사회/정서/역량발달 -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Grit)

- 그릿(2.53점 → 2.54점)을 제외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서 행복감(3.37점 → 3.22점)과 자아존중감(3.29점 → 3.14점)이 가장 많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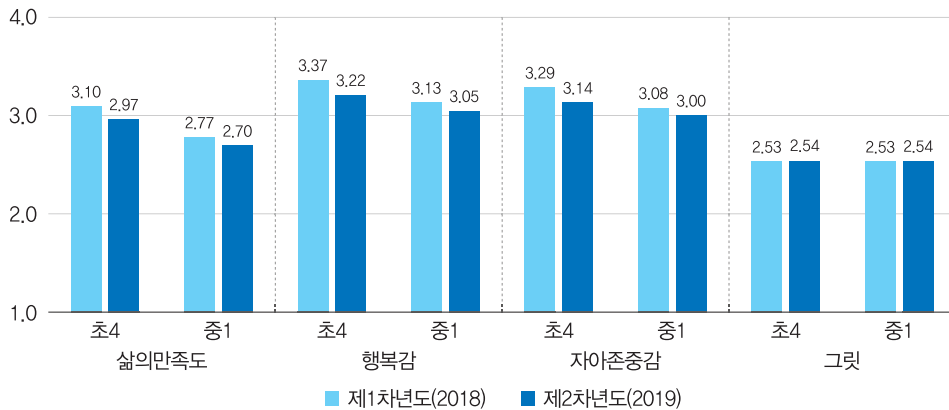


그림 1-3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평균

● 사회/정서/역량발달 - 정서문제

- 정서문제 관련 항목은 1차년도 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2.02점에서 2.10점으로(+0.08점) 더 높아짐.
- 세부항목별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우울은 1.53점에서 1.65점으로(+0.12점)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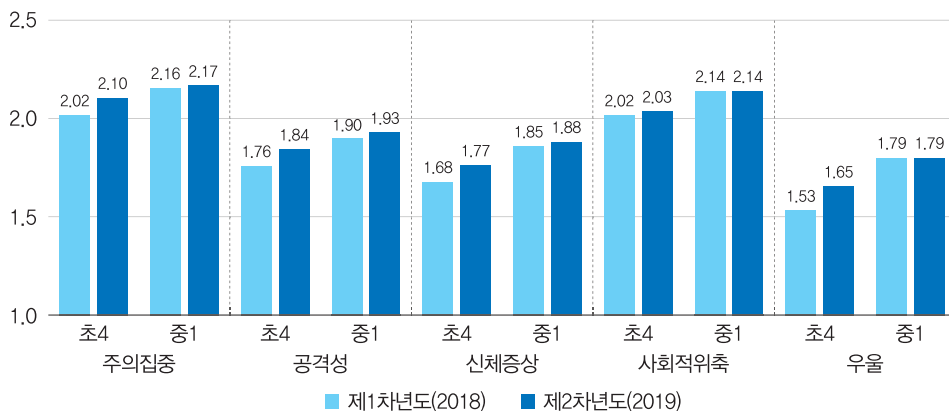


그림 1-4 정서문제 평균

● 사회/정서/역량발달 – 협동의식

- 협동의식은 두 코호트 모두 0.06점씩 하락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3.22점 → 3.10점)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3.13점 → 3.05점) 모두 팔로워십 항목이 가장 많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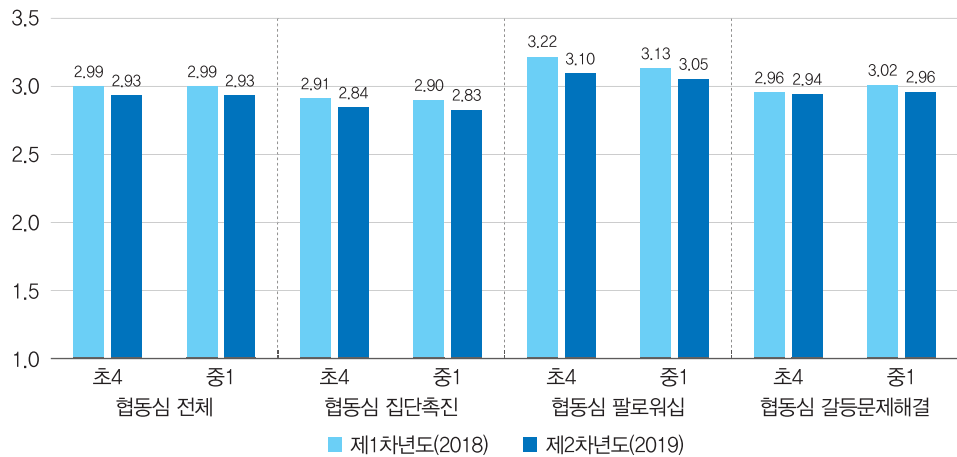


그림 1-5 협동심 평균

● 신체발달 – 건강

- 지난 일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모두 각각 0.33회(5.92회 → 5.59회), 0.20회(4.90회 → 4.70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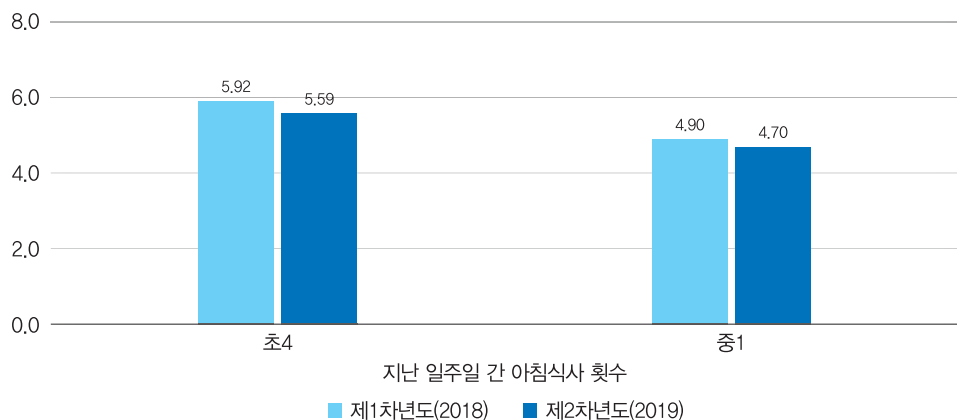


그림 1-6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평균

■ 발달환경

● 매체 - 스마트폰

- 스마트폰 의존도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1.82점에서 1.97점(+0.15점)으로 중학교 1학년 코호트(+0.09점) 보다 더 상승함.
- 세부항목별로 가상세계 지향성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0.23점)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0.15점) 모두 가장 많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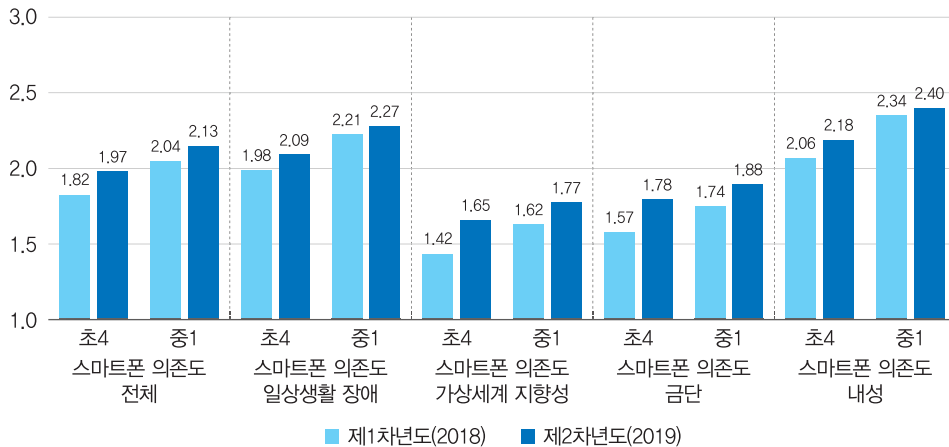


그림 1-7 스마트폰 의존도 평균

● 학교 - 친구

- 친구관계 전체 평균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각각 0.02점씩, 0.04점씩 떨어짐.
- 세부항목별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부정적(역) 항목이 3.20점에서 3.14점으로(-0.06점) 떨어진 반면,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긍정적 항목이 0.05점(3.12점 → 3.07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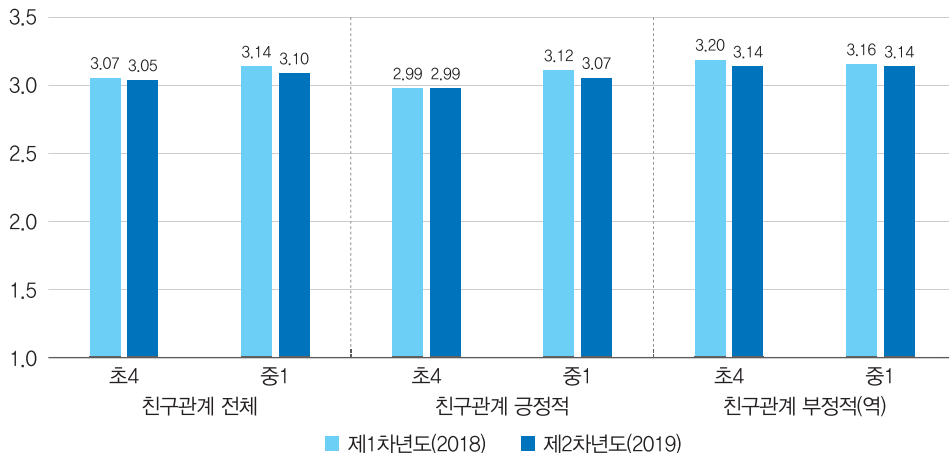


그림 1-8 친구관계 평균

● 학교 - 교사

- 교사관계 전체 평균으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3.00점에서 2.92점으로(-0.08점) 떨어졌고,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0.05점(2.81점 → 2.76점) 하락함.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교사관계 신뢰성이 3.09점에서 2.98점으로(-0.11점) 낮아진 반면,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교사관계 접근성은 유일하게 0.02점(2.49점 → 2.51점)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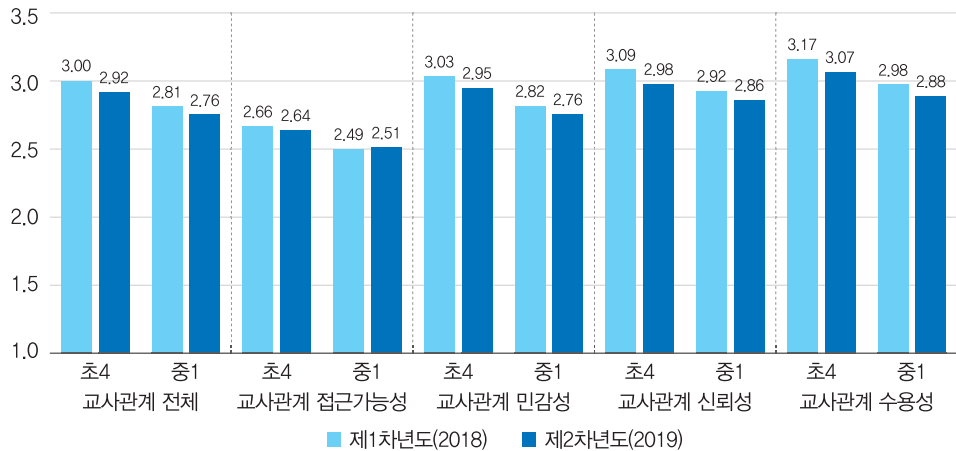


그림 1-9 교사관계 평균

● 가정 - 양육태도

- 양육태도의 경우 1차년도 대비 거부와 비밀관성은 높아진 반면, 따스함과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항목은 낮아짐.
- 세부항목별로 거부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가 각각 0.16점과 0.08점씩 가장 많이 상승한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구조제공(3.31점 → 3.13점)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자율성지지(3.35점 → 3.21점)가 가장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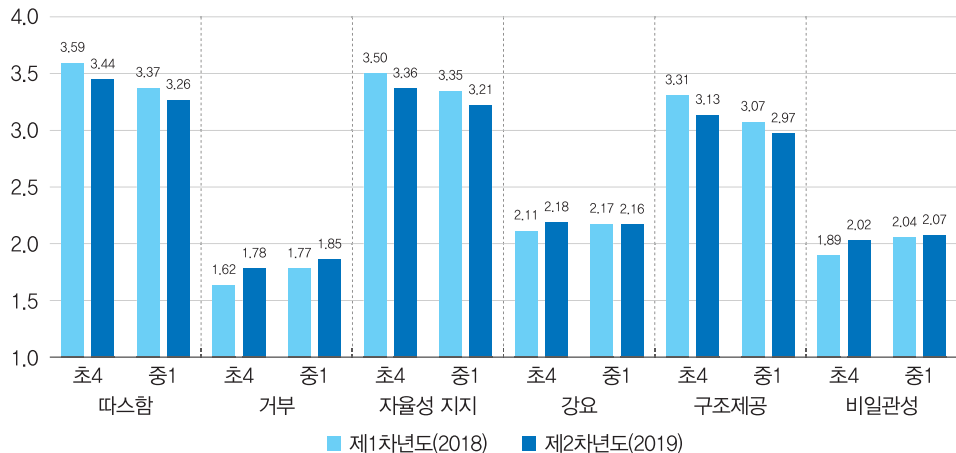


그림 1-10 양육태도 평균

2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

■ 주관적인 성향 (삶의 만족도, 행복감)

- 부모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1차년도 조사(w1) 보다 제2차년도 조사(w2)에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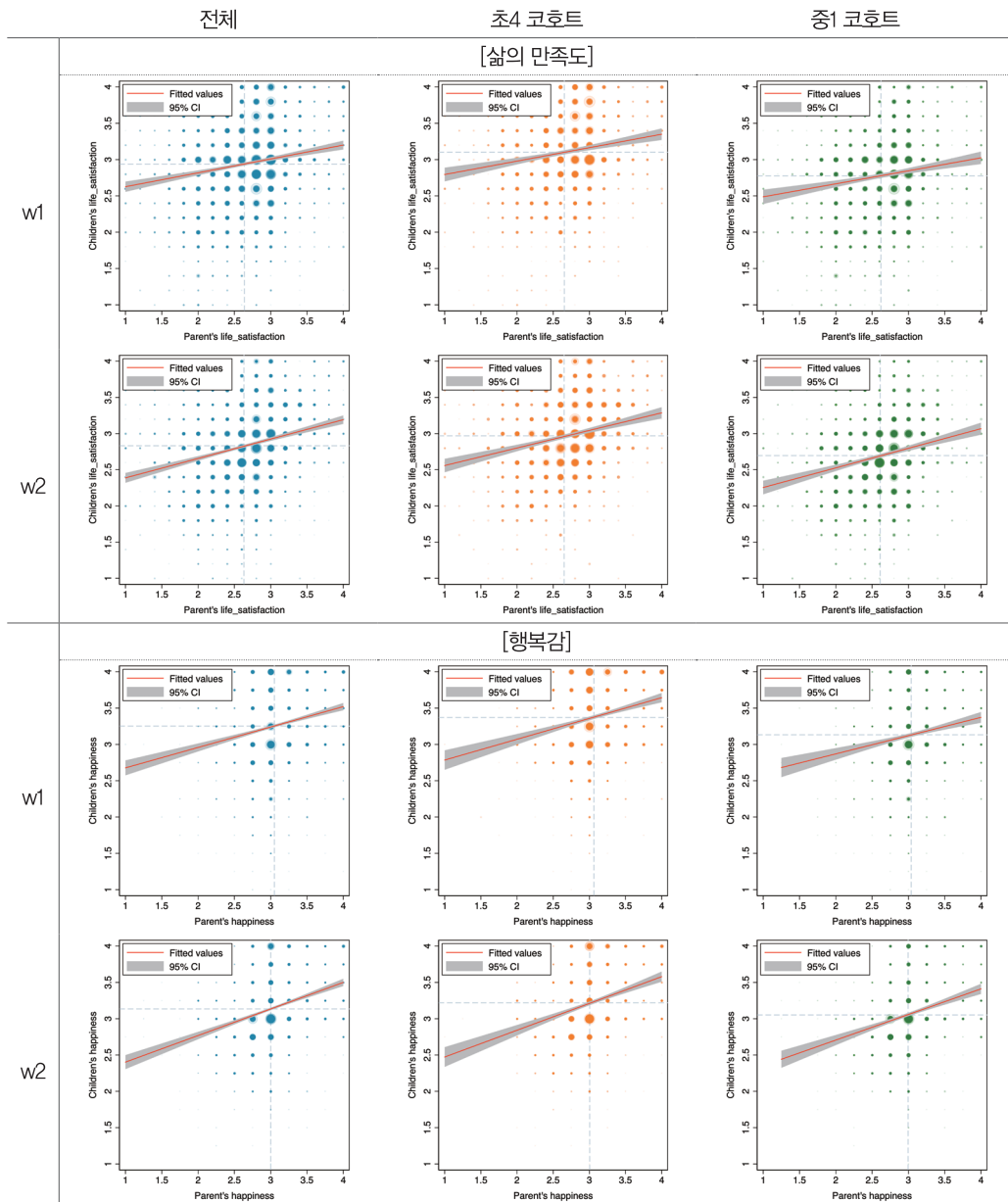


그림 2-1 주관적인 성향의 부모-자녀 관계

■ 개인적 특성 (자아존중감, 그릿(Grit))

- 자아존중감의 경우 부모-자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1차년도 조사보다 제2차년도 조사에서 관계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릿(Grit)의 경우 부모-자녀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보여지나, 제1차년도 조사보다는 제2차년도 조사에서 상관관계가 다소 강해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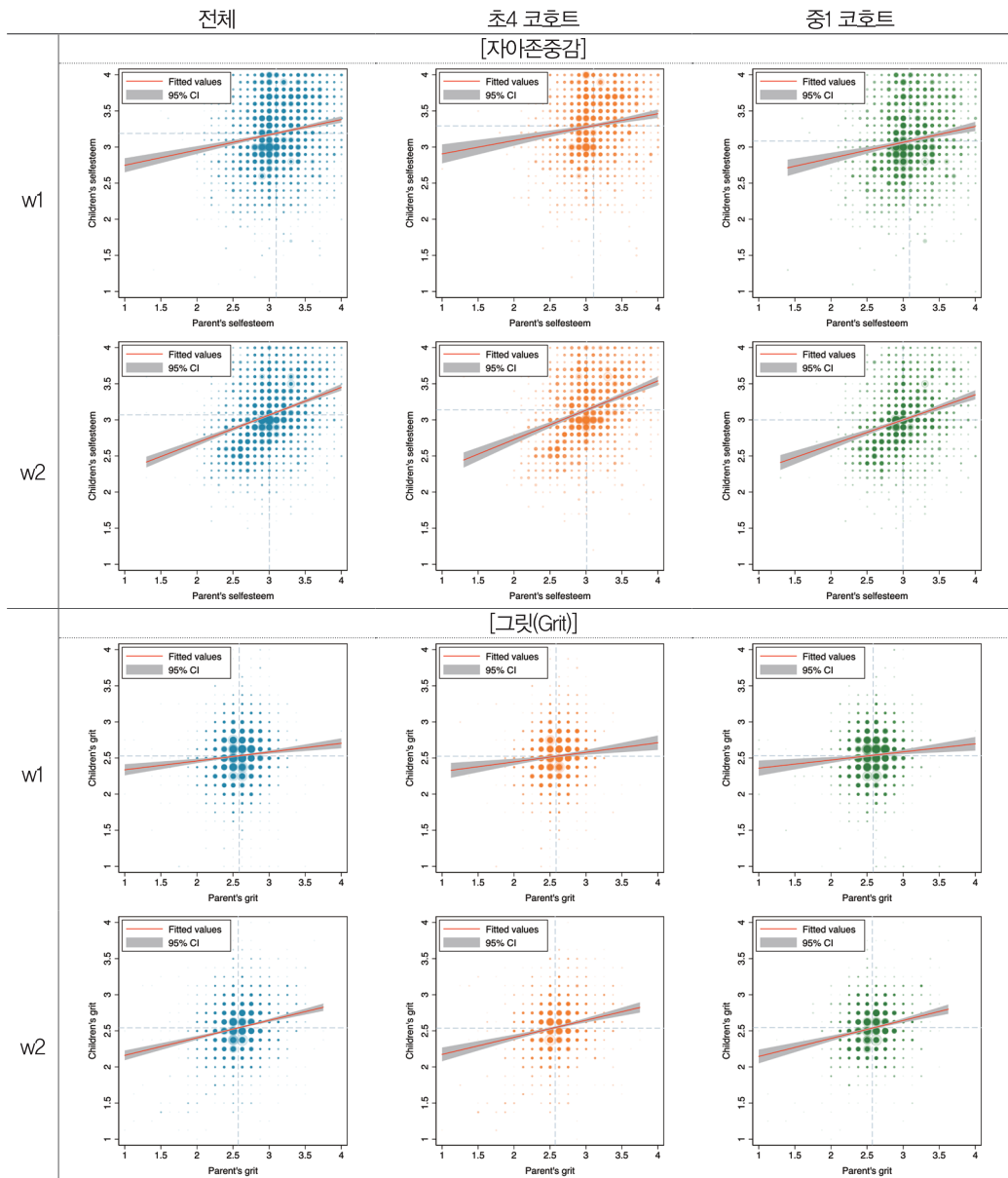


그림 2-2 개인적 특성의 부모-자녀 관계

■ 개인행동 (스마트폰 의존도)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항목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모두 제1차년도 조사에서도 부모-자녀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2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관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남.
- 제1차년도 조사의 산점도는 다소 흩어진 모습이고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더라도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부분이 많이 보였음.
- 반면, 제2차년도 조사의 산점도는 부모-자녀 관계가 추세의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으로 보이고 제1차년도 조사에 비해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는데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높은 부분의 빈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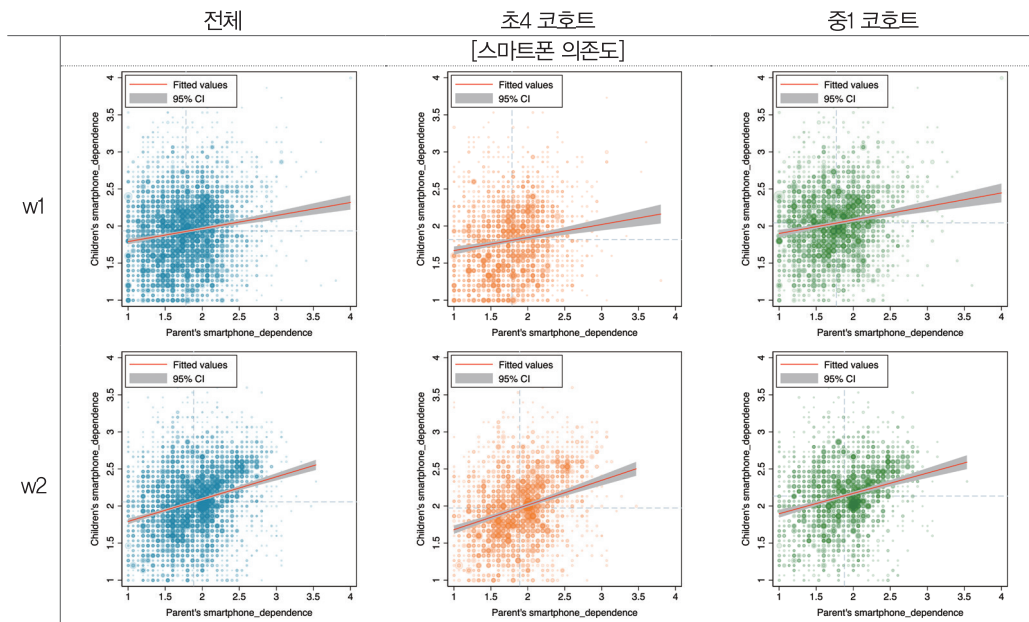


그림 2-3 개인행동의 부모-자녀 관계

3 양육태도 영향 변인

■ 양육태도 영향 변인 탐색을 위한 분석 모형

- 무선절편 위계선형모형(random-intercept Hierarchical Linear Model)으로 자료 구조에 적합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 편, ICC(intraclass correlation)를 산출하여 가구 차이에 따른 분산의 양을 추정하였음.
- 자료는 보호자와 패널 청소년, 형제·자매 등 3명 이상의 응답자가 한 가구로 묶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가지므로 다층모형을 통한 구조를 고려해야 함.
- 양육태도는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 내 개별 청소년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가구 내 및 가구 간 분산 공존) 분산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 분석 결과 및 주요 함의

- 양육태도 하위 구인인 6가지 종속변수에 따른 개인수준과 가구수준 독립변수의 유의성은 아래와 같음.

표 3-1 양육태도 영향 변인 분석 결과요약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개인 수준	아침식사	+	-	+		+	-
	주말대화시간	+	-	+	-	+	-
	학교생활만족		-	+	-	+	-
	나이		-		-		-
	학교성적만족				-	-	-
	출생순서		-			+	
	성별	+					
가구 수준	주중대화시간	+					
	월소득	+	-	+	-	+	
	부취업	+	-	+	-	+	-
	부나이		+	-	+	-	+
	부학력				+		

※ '+'는 양의 방향, '-'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변인을 의미함

-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에 아버지 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 출생순서(막내일수록 긍정적)와 자녀 연령(낮을수록 부정적)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양육태도 인식에 있어 가구(부모)에 따른 차이는 20.5%~34.7% 정도 차지하였음.
 - 분석결과는 아버지 교육의 내실화 및 참여율 제고와 아버지 양육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가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지지 기능이 중요함을 시사함.
 - 연구는 형제·자매 응답을 포함하는 대규모 실증자료를 통하여 양육태도 영향변인을 탐색하고 가구(부모)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의 양적 추정 및 출생 순서 효과를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음.

4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 유지조사 목적

-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2016년 조사가 종료된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를 2017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패널 접촉 유지에 초점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7개년 동안 청소년기의 성장과정과 관련 정책의 개입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3차 유지조사 주요 결과

- 유지율
 - 2019년 실시된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3차 유지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 전체 원패널 2,351명 중에서 1,591명(67.7%)과의 연락이 유지되었고, 1,365명(58.1%)이 웹조사를 참여함.
- 현재 상황
 - 주된 신분 중 학생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1차 조사 77.7% → 3차 조사 56.4%)하고, 직장인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1차 조사 11.5% → 3차 조사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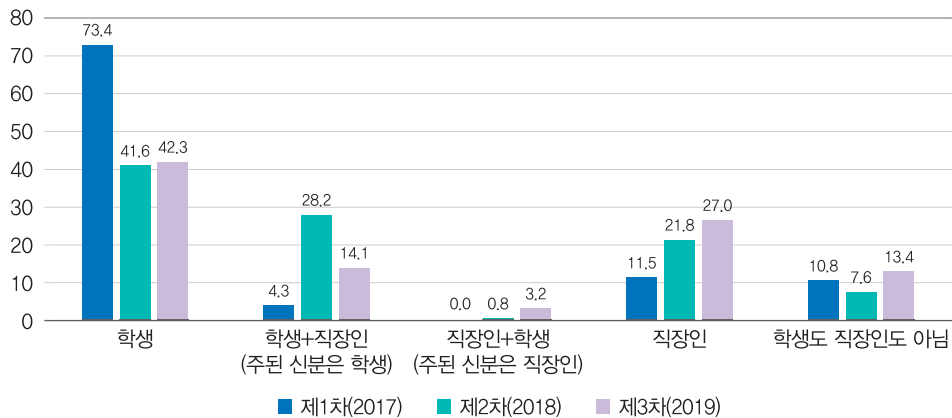


그림 4-1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결과

● 현재 삶의 만족도

- 현재 삶의 만족도는 '만족스럽지 않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6.1% → 6.9% → 11.9%)하는 반면에, '만족한다'(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는 감소(62.7% → 62.3% → 52.5%)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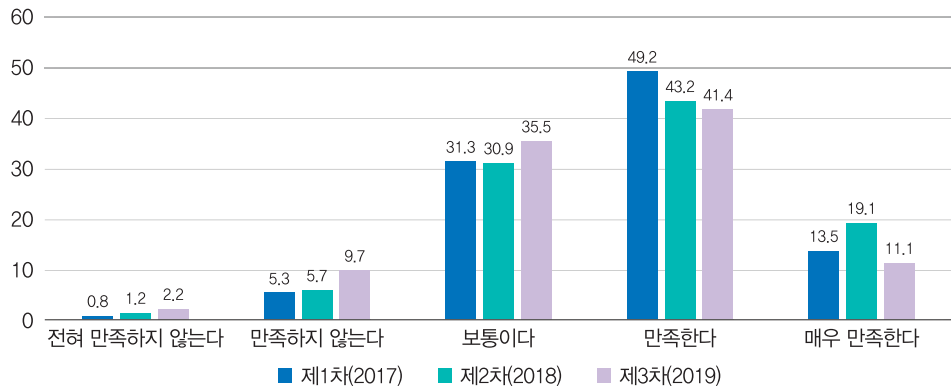


그림 4-2 유지조사 결과 : 현재 삶의 만족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인식

-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에 대한 인식의 경우, 1차(2017년)와 2차(2018년) 조사에서는 '화목한 가정'(18.1%, 24.9%)이 가장 높았지만, 3차(2019년)조사에서는 '재산/경제력'(35.6%)으로 끝났으며, '꿈/목표 의식'은 크게 감소(12.2% → 8.9% → 0.0%)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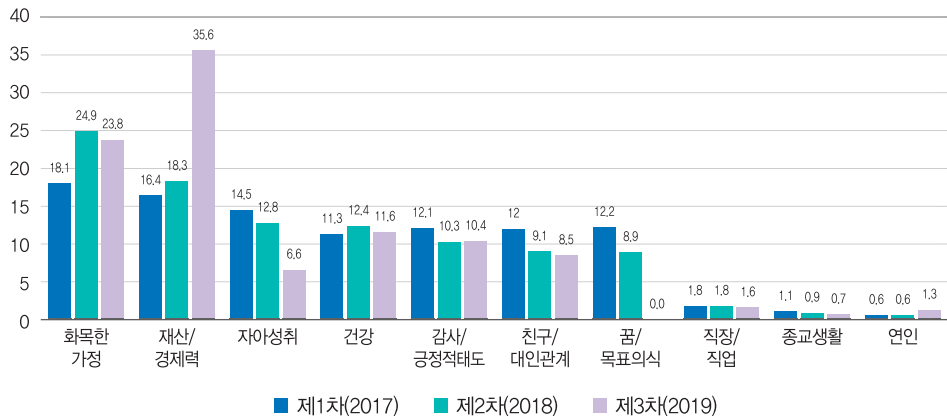


그림 4-3 유지조사 결과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